

성서 번역자 양성 과정을 위한 제언

- 스코포스 이론과 번역의 실재를 중심으로

조지윤*

1. 들어가는 말

몇 달 전 한 수험생 아버지가 딸이 성서 번역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하면 되는지 대한성서공회 번역실에 문의하였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성서 번역자를 꿈꾸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거니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학교도 발견하기 어렵다. 더욱이 우리 말 성서가 이미 있는데 왜 새로운 성서 번역이 필요한지, 개정 성서가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전 세계에는 현재 2만 명이 넘는 번역자들이 모국어를 번역, 개정하는 작업을 하거나, 선교지의 원주민 언어를 번역하는 작업을 한다. 유럽에서는 성서가 이미 15세기에 번역되었지만 성서를 새로이 번역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 중에는 영어보다 먼저 번역된 성경을 가진 네델란드가 있다. 네델란드어 성경은 영어성경이 1571년에 처음 번역된 것에 비해, 100년이 앞선 1477년에 족복음 번역을 시작으로 1522년에 완성되었다.¹⁾

오랜 성서 번역의 전통을 바탕으로 70여 명의 네델란드 성서 번역자들은 네델란드성서공회(the Netherlands Bible Society) 산하에서 여전히 새로운 번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네델란드성서공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 Amsterdam)의 성서번역학부와 협력하여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회원국의 번역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해왔다.

“성서번역학부”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번역자 양성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자유대학교 성서번역학부의 번역자 양성 1년 과정의 전체 커리큘럼을 소개하고, 구체적으로는 번역의 실재와 이론 수업 시간에 소개된 스코포스 이론을 중심으로 왜 우리 말

*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1) Liana Lupas & Erroll F. Rhodes, ed., *Scriptures of the World* (Reading: United Bible Societies, 1996), 16.

성서 번역자 양성 과정이 필요한지를 다루는 것이 될 것이다.

2. 자유대학교 성서번역학부의 번역자 양성 과정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성서번역학부는 세계 성서 번역 연구의 권위자인 얀 드 바르드(Jan de Waard) 교수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곳이다. 그는 잘 알려진 대로,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와 함께 성서 번역 이론의 교과서와 다름없는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Functional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on*을 저술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유대학교의 성서번역학부의 가장 큰 강점은 네델란드 내 타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와 다른 나라 학생들의 유입이라 할 것이다.

자유대학교의 성서번역학부는 암스테르담대학의 성서학부의 학생들이나, 라이덴 대학의 언어학부 학생들에게 교실 문이 열려 있어서 열띤 토론의 장을 공유한다. 네델란드의 대학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구두시험을 자주 보고,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하게 주장하는 학생이 교수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이런 치열한 토론의 풍토에서 성서번역학부 학생들은 다른 이들이 주장하는 번역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자기만의 독선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운다.

성서번역학부의 국제 사업으로는 라우렌스 드 프리스(Lourens de Vries) 교수²⁾와 자넷 다익(Janet Dyk) 박사³⁾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번역자 양성 1년 과정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네델란드성서공회가 네 지역,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지역의 성서공회에서 선발한 각각 한 명 씩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 양성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은 신학부와 언어학부의 모든 교수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자유대학교의 신학부는 성서 번역을 돕는 성서학 연구의 산실이다. 구약학부에는 탈스트라(E. Talstra) 교수가 이끄는 “컴퓨터 성서 연구소”(Werkplaats voor Bijbel en Informatica)가 있다. 이 연구소에서는 네델란드성서공회와 공동으로 히브리어 본문을 어휘 및 문법 자료로 언어학적 계급 구조를 세워 주석과 번역을 돕는 “퀘스트”(Quest)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⁴⁾ 신약학

2) 드 프리스 교수는 인도네시아 이란 자바 정글에서 13년 동안 코로웨이(Korowai)어 신약성서를 번역하였으며, 현재는 자유대학교 성서번역학부의 교수로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번역 자문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3) 자넷 다익 박사는 “컴퓨터 성서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으며, 네델란드성서공회가 주관하고 있는 새로운 번역 사업에 구약 번역 자문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4) 히브리어 언어 분석학에 관심 있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책들을 참고하여

부에는 본문비평학으로 유명한 바르다(T. J. Baarda) 교수가 봉직하였으며, 현재는 역사적 예수 연구자인 드 보아(M. C. de Boer) 교수가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에서 옮겨와 가르치고 있다. 한편, 언어학부에서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혹은 아카드어, 시리아어, 라틴어 등 고전어 뿐 아니라, 구문론, 문장론, 사회언어학 등 일반 언어학 이론 강의를 제공한다. 특히 모든 교육 체제는 소위 “맞춤 교육”으로 고전어 수업을 한 명이라도 신청을 하면 일대일 교육일지라도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특히 1년 번역자 과정의 학생들은 그 수준에 맞게 매주 6시간씩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강의를 필수적으로 수강하게 되어 있으며 매주 퀴즈를 보아야 한다.

이 교육 과정의 목적은 성서 번역의 이론과 역사에 대한 고급 지식과 번역 기술을 제공하여 성서 번역자 및 성서 번역 분야의 연구자들을 양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히브리어, 그리스어, 신학, 언어학, 정보 기술학(information technology), 번역학과 문화인류학 분야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성서 번역의 이론과 실체는 고전어 습득 다음으로 중요한 과정이다. 이외에 히브리어 성서와 그리스어 신약의 주석, 해석과 신학(텍스트와 콘텍스트), 구약 주석, 히브리어 성서(주석적 방법들), 신약 주석, 요한복음, 초대 교회의 남성과 여성, 갈라디아서에서 바울과 율법, 성서번역과 컴퓨터(성서와 정보기술, 본문과 컴퓨터, 번역을 돕는 컴퓨터), 대상 언어(target language)의 구성 연구(형태적, 통사적 구조의 유형학), 종교 인류학, 성서 번역자를 위한 일반 언어학, 성서 번역자를 위한 문화 인류학, 성서와 정보 기술 개론 등이 있다. 관련 연구로는, 성서 번역 프로그램으로서 히브리어 성서와 시리아어의 구문론 연구를 보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성서 번역의 인류학적 언어학, 번역학에 대한 소위 스키포스(skopos) 접근, 그리스어 신약과 성서 번역의 정보 구조, 성서적 은유와 다양한 주제의 번역 등이 있다. 이 중에 스키포스 접근은 나이다의 동등성 이론 이후의 번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다.

“퀘스트”(Quest)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 Talstra, “A Hierarchy of Clauses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 “Workshop: Clause Types, Textual Hierarchy, Translation in Exodus 19, 20 and 24,” E. J. Van Wolde ed., *Narrative Syntax and the Hebrew Bible*, Papers of the Tilburg Conference 1996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29) (Leiden: Brill, 1997), 85-132. E. Talstra, ed., *Computer Assisted Analysis of Biblical Texts: Papers Read at the Workshop on the Occasion of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Werkgroep Informatica”* (Amsterdam: Free University Press, 1989). E. Talstra, “Tense, Mood, Aspect and Clause Connections. A Textual Approach,” *JNSL*, vol. 23 (1997), 81-103.

3. 동등성 이론에서 스코포스 이론으로

자유대학교에서 “성서 번역의 이론과 실제”를 강의하고 있는 드 프리스 교수는 번역 이론을 크게 동등성(equivalence)과 스코포스(skopos) 개념으로 나눈다. 그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일반 번역 이론이 동등성(equivalence) 개념에서 스코포스(skopos, σκοπός) 개념으로 옮겨갔다고 본다.⁵⁾ 그러나 성서 번역의 이론들은 아직까지 동등성 개념에만 고착되어 있고 이러한 번역 이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등성 이론은 나이다가 “형식 동등성”(formal equivalence) 번역과 “내용 동등성”(dynamic equivalence) 번역으로 나누면서 정립되었다.⁶⁾ 그 후 나이다는 직역의 단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형식 일치”(formal correspondence)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내용 동등성이 수용어에 너무 초점을 맞춘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기능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 개념을 사용한다.⁷⁾ 형식 동등성은 원천 언어의 형식, 즉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의 단어, 구조, 본문유형을 대상 언어에서 그대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단어 대 단어 (word-for-word) 번역은 불가능하다.⁸⁾ 각 언어들은 그 언어 구조(문법, 어휘)가 다르고, 언어 사용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 10절의 חַי וְשָׂרָה 를 글자 그대로 옮기면 “생명의 시간”이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문맥의 의미를 알 수 없다. 그래서 한글 역본들은 문맥에 맞게 다양한 번역을 택한다.

『개역한글판』

10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5) Lourens de Vries, “Bible Translations: Forms and Functions,” *Bible Translator* vol.52, No.3 (2001), 306-319.

6) Eugene A. Nida and Charels R. Taber,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1969), 201.

7) Eugene A. Nida & Jan de Waard,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Functional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on*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6), vii-viii, 36.

8)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도서출판 두란노, 1996), 131-174. 이 책은 직역과 의역의 특징과 문제점을 한글 성서의 번역 문제와 함께 자세히 다루고 있다.

『공동번역』

10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봄 새싹이 돌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 때 네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천막 문 어귀에서 이 말을 엿듣고 있었다.

『표준새번역』

10 그 때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 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개역개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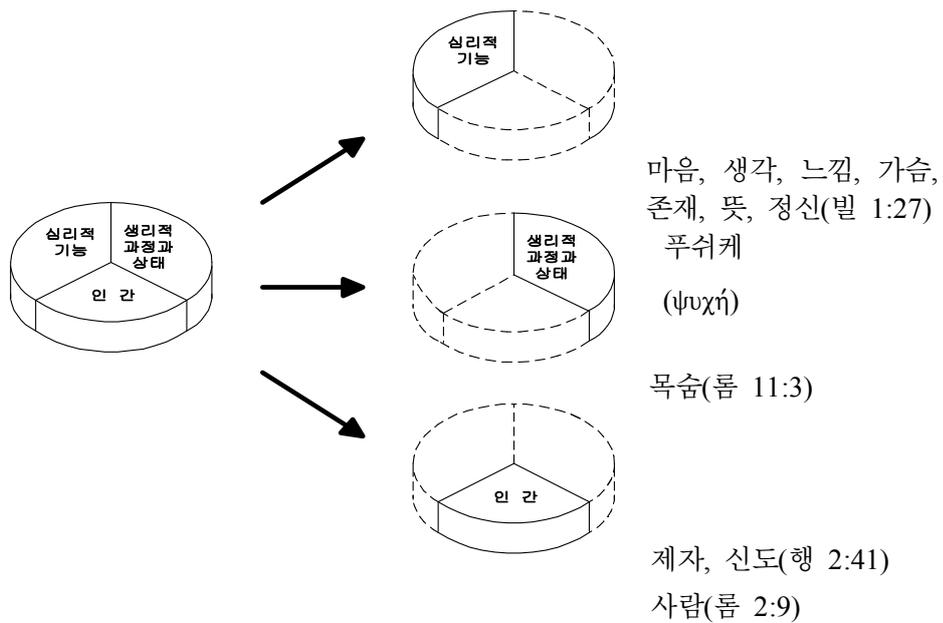
10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영어역본의 경우에는 『제임스왕역본』(KJV)과 『새제임스왕역본』(NKJV)이 “생명의 시간”(the time of life)이라고 번역한 것에 비해, 『새국제역』(NIV)은 “다음 해 이맘때”(this time next year), 『새예루살렘역』(NJB)는 “내년에”(next year), 『개정표준역』(RSV)은 “봄에”(in the spring), 『새개정표준역』(NRSV)은 “적절한 시기에”(in due season)라고 번역하였다. 영어역본 중에 『제임스왕역본』과 『새제임스왕역본』이 “생명의 시간”이라고 번역했을지라도, 한글역본에서는 “생명의 시간”이라고 번역하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라는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어 대 단어의 번역이 불가능한 것을 나타내는 일례이다.

그러면 원천 본문과 번역물이 기능의 동등성을 취하는 것은 가능한가? 그 기능에 있어서 세 가지 주요한 유형은 (1) 문법적 의미(수동태와 같은 구조의 기능이나 의미), (2) 사전적 기능(단어의 의미), (3) 수사학적 기능(반복과 평행과 같은 문체적인 의미와 담화 형식)이다.⁹⁾ 기능 동등성의 중심 이론은, 원천 본문이 최초의 청중을 위해 기능했던 것처럼 번역문도 현대 청중을 위해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번역자들은 번역물이 근본적으로 원천 본문과 기능적으로 동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선, 오늘날의 독자는 첫 번째 청중을 위해 기능했던 원천 본문의 “원래 기능”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기능”을 복원할 수 있더라도, 번역된 본문은 이미 원천 본문과 다르다. 번역문은 원천 본문이 읽혔던 원래 사회와는 다른 대상 사회(target society)에서 독자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¹⁰⁾

9) Eugene Nida,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78-178.

이러한 기능 동등성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함께 드 프리스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스코포스(skopos)를 소개한다.¹¹⁾ 그는 번역은 항상 본질적으로 선택(selectivity)과 잠정 결정(underdetermination)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¹²⁾ 하나의 번역은 원천 본문의 모든 측면을 다 보여줄 수 없으며, 번역은 번역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원천 본문의 몇 가지 측면을 어쩔 수 없이 잃는다. 예를 들어 “푸쉬케”(ψυχή)는 심리적 기능의 측면에서 “뜻”(빌 1:27), 생리적 과정과 상태의 측면에서 “목숨”(롬 11:3), 인간이라는 영역에서의 “사람”(롬 2:9)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¹³⁾



원천 본문에서 “푸쉬케”가 이 모든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지라도 번역자는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하며, 그 나머지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때 문제는 번역자가 선택을 할 때 원천 본문의 어떤 측면을 유지할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있다. 번역자들은 원천 텍스트 밖에서 끌어들이는 기준들(criteria)을 근거로 선택을 하며 잠정적으로 결정한다. 그 기준들은 번

10) Lourens de Vries, “Paratext and Skopos of Bible Translation,” W. Smelik, A. den Hollander, U. Schmidt (eds), *Paratext and Metatext as Channels of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Leiden: Brill Publishers, 2003), 17.

11) 스코포스는 ‘목적’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이다. 스코포스 이론가들에 의하면, 번역 과정을 결정하는 주요한 원리는 전반적인 번역 활동의 목적(purpose)이다. Christiane Nord,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1997), 27.

12) Lourens de Vries, “Paratext and Skopos of Bible Translation,” 17-35.

13) Louw & Nid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vol 2.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9), 266.

역자의 의도된 스킴포스와, 번역의 사용자와 구매자의 기대된 스킴포스이다.¹⁴⁾ 번역위원들에게는 의도된 스킴포스가 있으나, 이것은 치밀한 시장 조사와 함께 독자의 요구와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

번역의 스킴포스를 강조함에 있어서, 더글라스 로빈슨(Douglas Robinson)은 그동안 “번역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이 구문론적이고 의미론적으로 정의된 동등성의 절대 구조였다”라고 지적하며, 번역문의 사회적 기능과 번역 상황에 대해 강조한다.¹⁵⁾ 이런 맥락에서 크리스천 노드(Christiane Nord)가 번역의 기능을 “원천 자료의 분석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 목적에 따라 화용론적으로(pragmatically) 정의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 또한 타당하다.¹⁶⁾

과거의 성서 번역은 언어학적 접근으로 세 가지 기본 유형, 즉 형식적, 의미적, 해석적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¹⁷⁾ 그러나 이제는 원천 본문과 번역문간의 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문을 사용할 독자가 기대하고 있는 목적, 즉 스킴포스에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번역문은 번역되는 순간 원천 본문과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독자의 연령에 따라 어린이 성경이나 청소년을 위한 성경이나, 선교용 성경 등은 특히 그러한 분석을 요한다. 그것은 본문 번역을 위해서 뿐 아니라 파라텍스트를 다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4. 성서 번역에 있어서 파라텍스트(paratext)

성서 번역에 있어서 파라텍스트는 본문만큼 중요한 부분으로서, 독자들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파라텍스트는 용어 해설, 그림, 지도, 메타텍스트 등을 포함한다. 그중 메타텍스트(metatext)는 난외주와, 지도, 장, 절과 같은 요소이다. 난외주는 (1) 번역과 관련된 것과, (2) 고대 자료와 관련된 것으로 나뉜다.

(1) 번역과 관련된 난외주

14) Nord,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30.

15) Douglas Robinson, *Becoming a Translator* (London: Routledge, 1997), 192.

16) Christiane Nord,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Theory, Methodology and Didactic Application of a Model for Translation-oriented Text Analysis* (Amsterdam; Rodopi, 1991), 9.

17) 예를 들면 야고보서 3장 13절의 “엔 프라우테티 소피아스”(ἐν πραύτητι σοφίας)는 언어학적 접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1) 형식적 경향: 지혜의 온유함으로, (2) 의미적 경향: 지혜로운 온유함으로, (3) 해석적 경향: 지혜로부터 오는 온유함으로.

① 구약 자료 인용구나 성서 내의 병행구

신약에서 구약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구약의 출처, 즉 책과 장절을 밝히는 것이다. 관주성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관주에 들어가게 된다.¹⁸⁾ 한편, 병행 구절이 있는 경우에는 소제목 하단에 해당 병행 구절을 표기하여 독자들의 읽기를 돕는다.

② 중요한 이문

교회 역사와 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사본상의 문제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표준새번역개정판』에서는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난하주에 자세하게 달고 있다.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원본의 반영임이 분명하지 않은 본문은 대괄호[] 속에 넣는다. 후대에 첨가된 본문이지만 교회에서 일찍부터 중요하게 여기고 읽어 온 본문은 겹 대괄호[[]] 속에 넣는다. 그리고 난하주에서는 본문 비평에 관한 문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¹⁹⁾

③ 대안적 번역들

『표준새번역개정판』에서는 요한복음 1장 5절의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㉔이기지 못하였다”에 대해 “^㉕ ‘이기지’는 ‘깨닫지’ 또는 ‘받아들이지’로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다. 이 경우 『개역개정판』에서는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난외주에 제시한다.

④ 문맥에 따른 번역

예를 들면 욥기 19장 26절은 한글역본에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다.

26 וְאַחַר עֵרְוִי נִקְפֹּר־אֶת וּמִבֶּשֶׂרִי אֶחָזֶה אֵלֶיךָ

『개역개정판』

18) 민영진, 『국역성서연구』(성광문화사, 1984), 44. 이 책은 난외주의 기능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9) 예를 들면 『표준새번역개정판』의 마가복음 16장 9-20절 난하주에서는 본문 비평 문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㉑ 권위를 인정받는 대다수의 고대 사본들은, 8절에서 마가복음서가 끝남. 권위를 인정받는 한 사본은 8절 끝에 ‘짧은 끝맺음’(9절의 주를 볼 것)을 가지고 있음. 다른 사본들은 ‘짧은 끝맺음’과 함께 9-20절의 ‘긴 끝맺음’도 함께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고대 사본들 대다수는 8절 뒤에 곧바로 9-20절의 ‘긴 끝맺음’을 기록하였음. ^㉒ ‘마가복음서의 긴 끝맺음’(16:9-20). 이 긴 끝맺음 대신에 ‘마가복음서의 짧은 끝맺음’만을 가진 사본들도 있다. ‘그 여자들은 명령 받은 모든 일을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간추려서 말해 주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친히 그들을 시켜서, 동에서 서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을 담은, 성스러우며 없어지지 않는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셨다.’”

26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표준새번역개정판』

26 ㉠내 살갓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뵈을 것이다.

『표준새번역개정판』은 이 본문을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에 묶인 평행문으로 보아 생동감 있는 시적 운율을 살려줄 뿐 아니라 난외주에 다양한 번역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준다. 난외주에는 “㉠ 또는 ‘내가 갠 다음에, 비록 이 몸은 다 썩어도 그때에 내가,’” “㉡ 또는 ‘육체 밖에서라도’ 또는 ‘육체를 지닌 채”라고 되어 있다.

⑤ 인명의 의미

『개역개정판』에서는 창세기 17장 15절 하반절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2)사라라 하라”에서 “사라”의 뜻을 난외주에서 “여주인”이라고 설명한다. 성서 히브리어나, 이외의 아람어, 그리스어의 인명은 독특한 의미를 담는다. 한글역본에서 원어를 음역만 해놓은 경우 그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해주는 것 또한, 경우에 따라 번역자의 몫으로 남는다.

⑥ 어희(wordplay) 설명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와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전형적인 아이러니 문학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5-8절은 “프뉴마”(πνεῦμα)를 사용한 그리스어의 독특한 어희가 특징적이다.

8 τὸ πνεῦμα ὅπου θέλει πνεῖ καὶ τὴν φωνὴν αὐτοῦ ἀκούεις, ἀλλ’ οὐκ οἶδας πόθεν ἔρχεται καὶ ποῦ ὑπάγει· οὕτως ἐστὶν πᾶς ὁ γεγεννημένος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

『표준새번역개정판』

8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표준새번역개정판』에는 이러한 어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난외주에 “㉢ ‘프뉴마’는 ‘영’을 뜻하기도 하고(6절), ‘바람’을 뜻하기도 함(8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원문에서 ‘프뉴마’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독자들은 직접 읽을 수 없지만, ‘성령’과 ‘바람’이 반복되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프뉴마’를 통한 어희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2) 고대 자료와 관련된 난외주로는, ① 어원 설명, ② 그 어원의 문법적 형태 설명, ③ 본문 편집의 역사 설명, ④ 신학적 설명, ⑤ 역사적, 문화적 설명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어원 설명이나 그 문법적 형태 설명은 일반 성서에서 난외주 처리가 가능하지만, 본문 편집의 역사나, 신학적 설명, 역사, 문화적 설명 등은 주석 성경이나 해설 성경에서 제공할 수 있다.²⁰⁾

담화별로 묶고 그에 해당하는 소제목은 다는 것 또한 번역자들에게 중요하다. 소제목별로 단락을 나누는 것은 실제로 본문의 문학적, 수사학적 구조를 따르고 있으므로 번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 장점은 본문의 수사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가독성을 높이며, 본문을 찾기 쉽도록 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 본문 읽기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성서의 편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번역과 관련된 난외주와 고대 자료와 관련된 난외주를 어느 정도까지 제공할지는 성서 번역의 스킴포스에 달려 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는 주석 성경을 출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최근에는 독자들에게 주석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다양한 주석 성경을 개발하고 있다. 이 외에 독자가 기독교인인지 비기독교인인지, 어린이인지 장년인지에 따라, 그리고 그 용도가 예배용인지 선교용인지에 따라, 파라텍스트의 활용 범위가 융통성 있게 결정되는 것이다.

5. 번역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²¹⁾

문화인류학적 접근은 나이다가 그의 번역 이론을 정립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부분 중 하나이다. “번역이라는 현장 문제 때문에 나이다의 초점은 ‘문화와 의사소통의 인류학적 측면에 크게’ 정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²²⁾ 실제로 번역자는 단순히 문장을 옮기는 이가 아니라 문화를 옮기는 사람이다.

20) 특히 『해설관주 성경전서 개역한글판(독일성서공회판해설관주성경)』(대한성서공회, 1997)의 경우 양식비평과 편집비평, 사회비평에 관한 해설을 수록하여 독자들의 신학적 이해를 돕는다.

21) 드 프리스 교수가 지도한 ‘번역의 이론과 실제’(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수업 시간에 4명의 국제 학생들과 10명의 네델란드 학생들이 토론했던 문제들이다.

22) 알루 모졸라(Aloo Mojola)는 나이다 번역 이론을 고찰함에 있어서 나이다가 성서 번역자였으며 뛰어난 문화인류학자였다는 것을 강조한다(왕대일 엮음, 『쉽게 말해주시오, 본문비평과 성서 번역』(민영진 박사 회갑 기념) (대한기독교서회, 2000), 305-344.

성서가 대상 언어에 생명력 있게 옮겨지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언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개념을 적절하게 표현할 만한 어휘가 없으면, 그 개념은 그 문화에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히브리어, 그리스어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대상 언어에 없는 경우 번역자는 난감하지만 그 부분을 매워야 하는 것이다. 문화적으로 친밀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번역하기 위하여 번역자는 대략 세 가지 전략, 즉 총칭어나, 차용어, 문화적 대응어 등을 사용하게 된다.

(1) 총칭어

① 총칭적인 단일어

아프리카의 말라위, 잠비아, 모잠비크 등에서 읽혀지고 있는 체와어성경(Chewa Bible)에서는 마태복음 6장 28절의 “백합화”(κρίνον)를 “말루와”(maluwa) 즉 “꽃들을”이라고 번역하였다. 그 문화에서는 “백합화”를 본 적도 없거니와 그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천 언어의 “백합화”라는 표현에는 분명 “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천 언어의 의미를 손상시킬 수 있다.

② 형태나 기능의 묘사를 덧붙인 총칭어

체와어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투구”(περικεφαλαία)에 대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속 모자”라고 번역하였고,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낙원”(παράδεισος)을 “위로부터 온 기쁨의 곳”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5절의 “경문”(φυλακτήρια)을 “성경구절이 들어 있는 곁으로서 이마나 팔에 달고 다니는 것”이라고 번역하였다. 이렇게 우리 말 성경에서는 난외주에서나 설명될 만한 것이 본문에서 형태나 기능을 덧붙인 긴 부연 설명으로 번역할 때, 본문 문체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③ 지역적 비교를 덧붙인 총칭어

남태평양 군도에서 읽혀지고 있는 통가어성경(Tonga Bible)에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의 “겨자씨”(κόκκον σινάπεως)를 “본대와에”(bbondewe)의 씨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한다. “본대와에”는 어떤 지역을 지칭하는데, 겨자씨를 본 적이 없지만 “본대와에” 지역의 어떤 씨를 본 이들은 이 씨를 통해 겨자씨의 뉘앙스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대와에의 씨”가 가지고 있는 의미영역은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의미영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서 번역자는 성서 시대와 대상 사회의 문화적 이질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칭어를 사용하게 된다. 번역자가 불가피하게 총칭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번역문에서 원천 본문을 지시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실레이기도 하다.

(2) 차용어(借用語)

대상 언어에서 원천 언어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찾지 못할 경우 대상 문화에서 익숙한 언어를 차용하는 경우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많은 기독교 용어를 이슬람교의 아랍어에서 빌려왔다. 하나님을 “알라”(Allah)로 부르거나, 예언자를 “나비”(nabi), 제단을 “미즈바”(mezbah)로 표현한다. 우리말 성서에 있어서도 우리 문화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명을 채택했던 것은 기독교 선교와 맞물려서 오랫동안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였다.²³⁾ 올리브(Olive) 나무를 본 적이 없는 우리 조상들은 감람(橄欖)나무라는 차용어로 사용하여, 이제는 국어사전에조차 “(그리스도교 성서) 올리브를 한역(漢譯)한 이름”이라는 설명이 붙을 정도이다(참조, 감람원(눅 19:29, 21:37; 행 1:12), 감람 열매(약 3:12), 감람나무(롬 11:24; 계 11: 4)).

그러나 차용어 사용의 문제점은 원천 본문이 원래 독자들과는 달리 대상 사회의 독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번역이 이질적이거나 전문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용어가 우리 말 성경에서 ‘하나님’ 같이, 대상 언어에서 그 의미를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²⁴⁾ 적절한 차용어 사용은 번역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기독교 문화 창출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3) 문화적 대용어(代用語)

문화적 대용어는 익숙하지 않거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원천 본문의 개념을 대상 문화에서 잘 알려진 사건이나 물체로 대치한 용어이다. 문화적 대용어의 형태는 원천 언어의 지시어의 형태와 두드러지게 다르지만 기능은 문화적 대용어의 사용과 충분히 유사하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3장 27절의 “타포스”(τάφος)는 “땅을 파서 만든 무덤”이라기보다는 “바위로 만든 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한글역본에서는 대부분의 영어역본에서 “tomb”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말 대용어 “무덤”으로 번역하였다.

23) 초기 한글성경 번역 작업에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피터즈(A. A. Pieters)는 『성경개역』이 1938년에 출간된 이후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였다. “God에 대한 한국어가 없기 때문에 비록 그 의미가 honorable heaven이지만 God에 가장 근접하는 ‘하나님’을 채용하였다”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대한성서공회, 1994), 184).

24)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도서출판 두란노, 1996), 255-267. 이 책은 번역에 있어서 토착문화 용어 차용의 문제와 특히 우리 말 성경에서 신명으로서 “하나님” 사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① 원천 본문의 맥락에서 문화적 대응어가 부적절한 경우

로마서 16장 16절에서 “피레마”(φίλημα)는 “입맞춤”이라는 문안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당히 어색한 표현이다. 그래서 체와어성경에서는 “입맞춤” 대신에 “안녕”이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유다가 예수께 “입맞춤”함으로서 신호를 보냈다는 부분에서는 “입맞춤”을 “안녕”이라고 번역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나귀”를 본 적이 없는 문화에서 예수께서 “나귀” 대신에 “카누”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거나,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 대신에 “차”(tea)를 주셨다는 번역은 이러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② 성서 담화의 유형과 관련된 문화적 대응어

문화적 대응어가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는 기술(記述)보다 잠언, 시가, 비유 등에서 더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다. 체와어성경의 경우,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후 문을 두드렸더니 어린 여종이 나오는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는 “크루오”(κρούω)의 분사를 “문을 두드리는”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예수께서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린다”를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여 친구나 아는 사람의 집에 도착했을 때 부르는 체와어로 “이리 오너라”라고 부르신다고 번역하였다.

③ 시대착오적인 문화적 대응어 대 좀더 현대적 제안의 대응어

도량형의 변화에 따른 대응어 사용을 들 수 있다. 전통적인 우리 도량형인 “척”이나 “자”나, “리”(里), “규빗” 대신에 『표준새번역개정판』이 난외주에서 설명하고 있는 “미터”(m) 단위를 본문 번역에 적용하는 것이나(참조 요 21:8), “달란트” 대신에 “원”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도량형으로는 그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화인류학적 접근은 번역문에 대상 문화의 터부(taboo)와 기대(expectation)를 치밀하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스코포스는 원천 본문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번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천 언어가 번역될 수 있는 다양한 범위에서 스코포스의 영향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본질적이라고 할 것이다.

6. 문체와 담화 형식의 선택

번역자가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체를 선택하고, 어떤 담화 형식으로 번역할 것인가에 있다. 문체의 선택에 있어서도 독자가 기대하고

있는 스킴포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대상 언어의 문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어휘 선택, 절 내의 구문 선택, 절들의 결합 선택, 담화 조직 선택이 그것이다.

(1) 어휘 선택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는 위해서 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일상어를 사용해야 한다. 『개역개정판』에서 『개역한글판』에 있는 어려운 한자말을 쉬운 말로 바꾸고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개정한 것이나,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이 우리나라 표준어를 기준으로 번역한 것은 어휘 선택에 있어서 원칙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회 용어들(the church terms)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미 독자들에게 익숙한 용어들 대신에 신조어를 만들어 새로운 의미 영역을 제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앞으로의 성경 문체를 “~느니라”체로 할지, “~다”체 혹은, “~입니다” 체로 할지는 번역자가 선택해야 하는 어휘의 종류이다.

(2) 구문 선택

의미론적인 분류와 문법적인 등급이 일치해야 한다. 대상 언어에서 원천 언어의 문법과 다른 품사를 택한다 할지라도 원천 본문의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그리스어에 발달되어 있는 전치사는, 우리말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조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며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는 것이다.²⁵⁾

(3) 절들이 연결된 결합 선택

번역자에게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는 우리말보다 많은 접속사로 절들을 연결시킨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장 1-4절은 그리스어 신약 전체에서 가장 긴 한 문장이다. 이렇게 긴 본문을 적당하게 나누어서 번역하는 것이 번역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다.

1 Ἐπειδὴπερ πολλοὶ ἐπεχείρησαν ἀνατάξασθαι διήγησιν περὶ τῶν πεπληροφορημένων ἐν ἡμῖν πραγμάτων, 2 καθὼς παρέδοσαν ἡμῖν οἱ ἀπ' ἀρχῆς αὐτόπται καὶ ὑπηρέται γενόμενοι τοῦ λόγου, 3 ἔδοξε καὶμοὶ

25) 김창락, “전치사: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왕대일 엮음, 『좀 쉽게 말해주시오』, 360-397.

παρηκολουθηκότι ἄνωθεν πᾶσιν ἀκριβῶς καθεξῆς σοι γράψαι, κράτιστε Θεόφιλε, 4 ἵνα ἐπιγνῶς περὶ ὧν κατηχήθης λόγων τὴν ἀσφάλειαν

『개역개정판』

1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표준새번역개정판』

1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여러가지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 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2 그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그 일의 목격자요 말씀의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대로 엮어 냈습니다. 3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귀하께 이 이야기를 차례대로 엮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 이는,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귀하께서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RSV

1 Inasmuch as many have undertaken to compile a narrative of the things which have been accomplished among us, 2 just as they were delivered to us by those who from the beginning were eyewitnesses and ministers of the word, 3 it seemed good to me also, having followed all things closely for some time past, to write an orderly account for you, most excellent Theophilus, 4 that you may know the truth concerning the things of which you have been informed.

TEV

1 Dear Theophilus: Many people have done their best to write a report of the things that have taken place among us. 2 They wrote what we have been told by those who saw these things from the beginning and who proclaimed the message. 3 And so, Your Excellency, because I have carefully studied all these matters from their beginning, I thought it would be good to write an orderly account for you. 4 I do this so that you will know the full truth about everything which you have been

taught.

『개역개정판』에서는 두 문장으로, 『표준새번역개정판』에서는 네 문장으로 나누어서 번역하였는데, 번역본의 번역 원칙과 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문장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어역본에서 『개정표준역』(RSV)이나 『현대영어역』(TEV) 또한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개정표준역』이 그리스어 원문과 마찬가지로 1절부터 4절까지 한 문장으로 연결한 것에 비해, 『현대영어역』은 네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개정표준역』이 교회의 전통적인 예배용 성경이라고 할 때, 이러한 성서 번역의 문체는 대상 사회에서 어휘나 문법, 문체적 차원에서 읽기를 방해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현대영어역』과 같은 역본은 비기독교인이나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으로서, 읽고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번역 원칙을 세우고 번역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담화조직 선택

주제에 관한 주요 정보와 그 정보율로서 인물을 추적하여 담화를 연결시키고 문단을 나누는 것 또한 번역자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서는 생략하거나 명사로 표기할 만한 것들이 그리스어에는 대명사로 묘사된 경우가 많다. 단원의 표제를 표기하는 방법이나 이야기를 단락화하거나, 시편과 같이 시에서 연을 나누는 것 등도 번역자의 재량에 달렸다.

문체를 결정할 때에 형식 동등성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번역의 스킴포스에 의해, 어떤 담화 형태를 취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된 담화 형태는 원천 본문의 문체 요소들의 기능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돕고, 원천 언어로부터 번역문으로 표현 방식이 바뀐 것을 잘 간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2장의 그리스어를 그대로 옮기면 주체 인물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1 Καὶ ἔδειξέν μοι ποταμὸν ὕδατος ζωῆς λαμπρὸν ὡς κρύσταλλον, ἔκπορευόμενον ἐκ τοῦ θρόνου τοῦ θεοῦ καὶ τοῦ ἀρνίου

『개역개정판』

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밋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표준새번역개정판』

1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 나와서,

그리스어 본문을 그대로 옮기면 “보여주다”(ἐδειξέν)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표준새번역개정판』에 번역되어 있는 것과 같이 문맥상 “일곱 천사 중 하나”(계 21:9)인 “천사”가 분명하다. 이렇게 22장의 대명사 주어를 명사로 명확하게 표기해주지 않으면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7절에서 “오다”(ἔρχομαι)의 1인칭은 누구를 지칭하며, “그의”(τοῦς)에서 “그”는 누구인가가 1절과 연결되어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7 καὶ ἰδοὺ ἔρχομαι ταχύμακάριος ὁ τηρῶν τοὺς λόγους τῆς προφητείας τοῦ βιβλίου τούτου

『개역개정판』

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표준새번역개정판』

7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7절의 “오다”의 주어나 “그의”는 1절의 주어인 “천사”와 달리 『표준새번역개정판』에서 번역한 대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원천 본문이 주체 인물의 정체성에 대해 단서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독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므로, 번역자는 원천 본문의 담화를 적절하게 재구성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7. 우리 말 성서 번역자 양성을 위한 제언

동등성 이론 이후의 스코포스 접근법은 현재 독자가 기대하고 있는 스코포스를 새롭게 부각시킨다. 기존의 형식 동등성이나 기능 동등성 이론이 원천 본문과 번역문과의 관계를 도관 구조로서 강조하였다면, 스코포스는 이런 번역 과정 외의 부분으로서, 번역자의 의도된 스코포스와 독자들의 예상된 스코포스를 번역을 위한 기준으로 끌어들인다. 번역자는 이러한 접근법에서 파라텍스트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활용해야 하며, 성서 시대의 언어와 대상 사회 언어 현상의 이질감을 충분히 이해해서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독자층과 성서의

용도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어휘, 구문, 절, 담화 형태를 새로이 구성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번역 이론은 독자들의 요구에 민감해야 함을 강조할 뿐 아니라, 성서고고학, 언어학, 문화 인류학, 일반 번역학, 사전학 등 각 학문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성서 번역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언어학자들은 언어가 30년 주기, 즉 한 세대마다 변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각 시대의 번역자들은 늘 그 시대에 맞는 성서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 맞는 성서를 번역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고도로 훈련받은 번역자가 필요하다. 성서 번역자는 성서 시대의 언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당시 사회의 문화, 사회, 경제, 역사를 신학과 문화 인류학, 그리고 사회언어학의 도움으로 이해해야 하며, 우리 사회 언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체계적인 우리말 연구도 간과할 수 없다. 성서 번역자가 가장 쉽게 빠지는 오류는 원천 언어를 지시적으로 옮겨서 우리말로 이해할 수 없는 비문을 만들거나, 한정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번역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이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성서 번역에 대한 저변 이해를 돕는 장기적인 번역자 양성 과정과 함께, 신학계 뿐 아니라, 언어학계의 도움이 절실하다. 특히 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 연합회가 전세계 성서 번역을 위하여 오랫동안 쌓아온 지적 유산을 우리 말 성서 번역자 양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첨단 번역 방법론과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서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때에는 성서공회와 대학의 유기적인 협력도 한 방법일 것이다. 새로운 성서 번역을 하고 있는 네델란드성서공회는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하여 새 번역의 낱권 책들(portions)을 하나씩 출판하여 수업시간에 교재로 사용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번역과 성서공회가 출판한 새로운 번역을 비교하며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검증하는 작업을 한다. 학생들로서는 번역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성서공회로서는 새 번역에 대한 성실한 검토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승효과(synergy)를 얻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서 번역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준비된 자세이다. 번역자의 자질에 대해 언급한 나이다의 지적은 오늘날의 번역자에게도 해당된다. “번역자는 민첩하게 암기하는 지적 능력과 재빨리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좋은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언어 구사를 위한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 그러나 만약 번역자가 지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언어구사의 수려함, 지성, 표현의 창조성,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²⁶⁾

26) Jan de Waard & Eugene Nida,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Functional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ng*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6), 58-59.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 있으며, 이를 담아내는 언어 또한 사회의 급변에 따라 끝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서 번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는 거룩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 거룩한 작업에 임함에 있어서 번역자는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모두 알아낼 수 없으며, 번역 작업 중 많은 부분을 소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선대 번역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시대의 번역자들 또한 늘 두렵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이다.

Abstract

Proposal for Korean Bible Translators Curriculum

- The Skopos Theory and the Practice of Translation

Ji-youn Cho

To suggest an appropriate curriculum for Korean Bible translators, this article first reviews the one-year program for Bible translators at the Free University in the Netherlands, which is a program that has been supported by the Netherlands Bible Society for the last ten years, and focuses on evaluating Korean translations using the Skopos theory and the translation practices of Prof. Lourens de Vries. The translation principles of the three Korean translations that have been most widely read by Korean Christians have moved from the principle of formal equivalence to the principle of functional equivalence. In the strict sense,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achieve equivalence between the source and the target in Korean translation. As translators select a part of the source, they lose the rest; therefore, they must be sensitive to the intended skopos (goal) of the translation committee and the expected skopos of readers.

In terms of the shift from equivalence to skopo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effective usage of paratext, the anthropological approach to Bible translation, and the selection of the style and discourse. In addition to this approach to translation, it is necessary for the potential translators to receive translation training with an emphasis on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theology, linguistics and translation studies.

In particular,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n Bible Society and the universities that have theology or linguistics departments will contribute importantly to the new Bible translation project. The Bible Society is in a position to sensitively reflect not only the needs of the churches but the information on recent theories and methodologies worldwide as well, while the universities will be able to give lectures related to Bible translation and use new translations as textbooks in order to evaluate or criticize translations. Most important, however, is for the Bible translators to continuously improve their professional capacity and to realize their strong calling from God, as did the first translators of the Korean Bible.